



총회장 성흥경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 취임식 가져

총회성장에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모범된 총회로 진력해 나가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10.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송석교회에서 총회장 성흥경 목사 취임식과 총회임원 취임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준택 목사가 기도를, 회목서기 이기식 목사가 여호수아 1:10-18절을 봉독하고, 경천 노회 찬양단의 특송이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장창수 목사는 "우리가 가리이다"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취임식에 들어가서 서기 김준택 목사가 총회장 성흥경 목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감사와 임원들을 호명하고 각각 소개했다. 증경총회장 정창갑 목사는 취임하는 총회장과 임원들, 감사사를 위해 기도하고, 신임총회장에 교단기를 이양했으며,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어 성 총회장은 임원들과 감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또한 웨신부흥사회 대표회장 장정운 목사는 총회장에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지

저스인터넷TV 오동남 대표가 등단하여 총회장과 총무, 부흥사회 대표회장 등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날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사명을 웨신총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총회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연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내외 귀빈, 동역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성 총회장은 총회원 한 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듣고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내용 있고, 자생력 있는 총회를 만들어 가겠으며, 교단의 원로와 실



행위원, 임원들의 뜻을 존중해 하나님께 합한 웨신총회로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총회의 법과 규칙을 지키고 이를 지키는 자들이 존중받는 모범총회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총회가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데

있다. 이날 증경총회장 정재규 목사의 축사와, 증경총회장 김용진 목사가 격려사를, 증경총회장 이원석 목사의 권면과 총무 신연창 목사가 광고한 후 증경총회장 이동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예장합동 (사)NGO 해피나우 설립 본격 가동

시은소교회 김성길 목사(63) 대표회장 취임



「배고픈 북한 동포에 식량과 생활용품 등 비료를 지원하여 기아에서 벗어나게 지원할 것이며, 복음과 빵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가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안에 최초의 비정부기구(NGO)인 해피나우를 결성, 설립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해피나우(Happynow)는 10월 18일 경기도 수지 시은소교회에서 설립예배 및 대표회장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세계선교와 저개발국가 지원 활동으로 영혼과 삶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산하 NGO로 출발한 (사)해피나우는 합동총회 선교부의 변천 속에 성장했고,

1901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전신인 조선장로교공의회에서 전도위원회로 출발하여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독노회 시기에는 외지전도국,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시기에는 외지전도부, 1925년 총회에서는 외국전도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세계선교회 약칭 GMS였다.

GMS 조직기구로는 국내 선교업무를 담당기관 본부총무부 선교사 업무를 관장하는 선교총무부,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선교훈련원

구원 등의 3개구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제6대 이사장 이종영 목사가 취임한 후 2008년 11월에 선교지원단을 창설했다. 선교지원단은 이듬해인 2009년 1월 20일 통일부에서 사단법인 한민족사랑네트워크로 설립허가증을 취득했다.

2009년 9월3일 총회세계선교회 총회에서 선교지원단을 해체 시키고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한민족사랑네트워크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인이사회는 새롭게 많은 뜻을 얻은 분들을 영입하여 법인이사회와 운영이사를 조직하여 오늘의 해피나우를 발족한 것이다.

해피나우의 주요 사업 목적은 인도적 지원사업, 복지시설 지원사업,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이날 설립예배는 법인이사 김창근 목사(광천교회)의 사회로 법인이사 박무용 목사(대우금융교회)가 기도, 법인이사 조별철 목사(대흥교회)가 성경을 봉독하고 증경총회장 김자연 목사(왕성교회)가 두 종류의 사람 "탄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2면에 계속>

사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안되고 TV 보는 것은 괜찮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운행 중 TV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MDB)을 시청하는 택시기사를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것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운전 중 DMB시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통계로도 알 수 있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결과 정장주행 중일 경우 76.5%였던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휴대전화 사용시 60.6%, DMB 시청시 50.3%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 연구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반

응속도가 12% 둔해지는 데 비해 DMB를 시청할 경우에는 무려 35%나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운전 중 DMB 시청을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 · 도지사가 1961년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단속해왔으나 법원이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행여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조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음주운전은 엄벌하면서 그보다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모순이다. 정치권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9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고,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관련업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경찰도 단속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진행형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업계도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운행 중일 때는 영상 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규제가 필요하다.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23편 1절~2절) / 신화자 포토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웨신) 총회 · 노회 임원 단합대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서기 김준택 목사



부서기 조광표 목사



회의서기 이기식 목사



부회서기 고영전 목사

대전 한화리조트로 초청합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일동



주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절)

일시: **2009년 11월 9일(월) ~ 10일(화)까지(박2일)**

참고: 총회 · 노회임원 (개회예배: 9일 오후 4시)

장소: **대전 한화리조트**

(대전IC에서 대전해수욕장방면 5Km)지점

연락처: 총무 · 010-8602-3009/

한화리조트(주)대전 041-931-5500

(충남 보령시 신항동 2017)



회계 허성인 목사



부회계 정일량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



감사 전현구 목사



감사 이일영 목사



감사 정창갑 목사



웨신총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weshinch@korea.com

www.웨신총회.net

<1면이어서>

상임이사 하귀호 목사(만민교회)사회로 취임식이 진행되어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종영 목사(성원교회)가 인사말, 실무이사 최병국 목사(경과 및 사업보고),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서울나들목교회)가 홍보대사 신지에 프로골퍼 영상과 구호제창을 가졌으며, 교단총무 이치우 목사가 약력을 소개했다.

또한 총회장 서정배 목사가 대표회장 김성길 목사, 법임이사 김성호 장로, 상임이사 하귀호 목사, 실무이사 최병국 목사, 운영이사장 소강석 목사, 봉사단장 옥상석 목사,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 홍보대사 신지에 프로골퍼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어 대표회장 김성길 목사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에 관심과 협력의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나누고 섬김으로 실천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해)나우의 철학은 "지금은 행복하다"입니다. "지금 여기서"행복한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주안에서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좁은 감이 있지만 늦게 출발한 주자이기에 더욱 몸과 마음을 모아 우리들

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물로 동역하고 협력을 부탁드리며 취임사를 마쳤다.

또한 대표회장 김성길 목사는 인터뷰에서 "북한 동포와 어린이를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6.25전쟁 직전 서울 천척 집에 놀러 왔다 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에 남으면서 실향민이 됐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된 것은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이다. 받은 것을 되돌려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해피나우를 통해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 3만 원이면 북한 어린이들이 한 달간 살아갈 수 있기에,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나서면 북한 어린이와 주빈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목사의 오랜 숙원이 해피나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지난 4년을 준비해 온 결실로 설립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임신형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부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김용서 수원시장,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소프라노 이정자 교수(수원과학대)가 축가를,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가 참석한 성도들과 내빈들을 소개하고 증경총회장 한병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기총 총무협 신임회장에 박중선 목사 당선

부회장에 도용호 목사(호헌B), 부회장에 심영식 장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총무협의회는 10월 20일 오전 11시 본관 15층 세미나실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중선 목사(65세, 사진 예정 합동개혁신리)가 당선됐다. 이어진 부회장 선거에서 도용호 목사(예장 개혁신리)가 당선되었으며, 장로 부회장에 심영식 장로를 추대하고, 회장단은 신임원을 선정, 발표했다.

서기 김병근 목사(예장 합동총신), 부서기 정바울 목사(예장 개혁신리), 회의록서기 유바울 목사(예장 총회), 부회의록서기 박광철 목사(예장 진리), 회계 최귀수 목사(예장), 부회계 서정숙 목사(예장 개혁신리), 감사 김탁기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감사 정



해송 목사(예장 개혁신리)가 선출됐다. 박중선 신임회장은 인사를 통해 "교단의 규모도 크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다. 지금은 서로 평가 받았어도 앞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주문하고 "안티기독교 세력 등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포스메이커가 되어 귀퉁이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직전 회장

박중선 목사(예장 합신)는 "지난 1년간 감사하고 과분한 시간이었다. 총무님들의 협조와 사랑 가운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신다."

1년간 여러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해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우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는 신임원들에게 격려사를 통해 "총무협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발전해나가기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교단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협력을 통해 성숙해지는 총무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총무협은 이후 회장 선출에 대한 규칙개정 긴급동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회장 선출 규정 변경의 여지를 남겨뒀다.

현재 총무협은 회장과 부회장 각각 1인을 두고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을 갖고 있으나 부회장을 다수(교단은 연합기관 비례의 수, 연합기관 1명)로 두되 회장 후보자는 본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지는 내용이다. 이에 총무협은 개정위원 5인을 선정, 규칙부에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회기 중 열리는 월례회에서 보고받되 2010년 정기총회에서 결의키로 했다.

과천왕성교회 임직감사에배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왕성교회(담임 김요나 목사)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현대빌딩 5층 중앙동 성전에서 지난 10월 17일 오후 3시 임직감사에배를 드렸다. 김요나 목사 사자로 1부 감사에배가 시작되고 원준희 목사(과천시교회연합회 증경회장)가 기도, 김영일 목사(장

요나 목사는 권사 취임기도와 임직을 받은 김병수, 노영근, 이정규(사무장), 김승용, 오철승, 이길성, 최상철(집사) 박성자, 성혜자, 신영근, 윤길배, 이영자, 이용해, 최승옥, 최희선, 한말재(사무장) 등, 맡겨진 직책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원왕성교회)가 열왕기하 2:1-3절을 봉독하고,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이 드려졌다. "지금은 열리사가 필요할 때"는 제하의 말씀을 과천왕성교회를 설립한 김지연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 노동영 목사(평양노회 서부시찰장) 사회로 임직식이 진행되고, 장로, 집사를 위해 담임 김요나 목사가 인수기도를, 안수위원의 악수례가 있었으며, 김

이날 김성길 목사(시온교회)는 임직자에게 권면, 홍성재 목사(동도교회)는 본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했다. 아울러 김진웅 목사(갈바대이사장), 백도웅 목사(평복지사) 등이 축사를 했으며, 기념품증정과, 임직증정이 교환되고, 이원보 장로가 답사를, 노영천 장로의 인사와 광고가 있었으며, 김경일 목사(평양노회) 축도로 마쳤다.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연속 특별기도회 가져...

우리도 바울처럼 국가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이하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실에

서 전국에서 모여든 여성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연속특별기도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을 진동시켰다.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는 초대교회 바울을 상기하면서 지금은 영적 각성 운동이 절실할 때라며, 우리도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愛國愛族을 갖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목회자답게 사역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국민이지만 육적으로는 지상국가의 국민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나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바로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권 대표회장은 바울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염려할 뿐 아니라 회개와 신앙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당부하고 아울러 한기여총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라와 민족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애국애족으로 국

가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다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중심적 국가 발전에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을 갖고 힘써 기도하고 부트밋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박현희 목사(강원양구 지부회장)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송복순 목사(대전 지부회장)가 기도, 윤병희 목사(경기성남 지부회장)가 성경봉독, 임택희 목사(서울강동 지부회장)가 찬양을, 오

케스트라 연주단장 안동환 전도사 외 8명)가 특송을 가졌으며,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가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소연 목사(서울노원1 지부회장)가 헌금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특별기도에 11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정희 목사(강원영월 지부회장), 2.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권영자 목사(충남천안 지부회장), 3.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장보화 목사(인천남부 지부회장), 4.세계금융연합회 발전을 위해 박희래 목사(경남울산1 지부회장), 5. 세계나눔복지재단을 위해 박인순 목사(경기화성 지부회장), 6.한기여총 전국 지부회장단 부흥을 위해 박은혜 목사(대구 지부회장), 7.한기여총 미래지향적 비전을 위해 서미순 목사(경기과천 지부회장), 북한 북측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권영자 목사(경기안산 지부회장) 등이 등단했다. 이어 김소자 목사(서울중앙 지부회장)가 광고를, 허성자 목사(충북 지부회장)가 축도 후 한상옥 목사(서울노원2 지부회장)의 식사기도로 마쳤다.

이제 교회도 풀 칼라시대!

COLOR가 살아있는 칼라주보복합기 1,199,000원 칼라주보복합기가 79만원 행사특별가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색감 2400×600dpi의 인쇄 / 복사해상도 정밀하고 선명한 인쇄품질의 simitri xhsj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저렴한 유지비 (4,500대 고용량 토너)
◆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기능 흑백20매, 칼라5매의 분당인쇄 속도 월 권장 출력량 35,000매의 튼튼한 구성
◆ 다이렉트 포토 프린트 PC없이 직접 사진출력
영광기업이 각 교회에 드리는 특별선물!!! 전자동 디지털 칼라주보복합기

PC영 주보 인쇄기 우리교회 주보 (인쇄물) 우리가 만들어요

- 손쉬운 작동
- 컬러 인쇄로 OK
- 신속한 인쇄
- 용지선택의 Free
- 저렴한 비용
- 뛰어난 내구성
- 교해상도의 인쇄물
- 다양한컬러인쇄

영광기업이 15여년을 보냈습니다.

-한번 판매한 제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칼라 복사기 A3 20매 200만원대 출시기념! 흑백기 가격으로 칼라기를 쓴다!

100대 한정판매 실시 6,600,000원 → 2,990,000원 ※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36개월 할부, 중고복사기 보장)



이제 교회도 FULL Color시대 입니다!! 세계최초 최대 1m 20cm 출력! Color 200 A3 단면적 자동 양면 컬러 / 흑백 출력 복사 & 포스터!

Q.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A. 재구매율을 높여주는 가성비! 주보 전도지 포스터 한글영문 소책자 교회요람 부흥회예배 등 주일학교 유치원 초·중·고등부 홍보물 청원부 성가대 찬양대 찬양대 등

접지기, 중절기

중절제본&접지기 85~A3까지 중절제본 - 접지 장아상인 주보 교재책자 등 20매 80페이지까지

T-업착기 영광기업 칼라복합기로 사진, 그림, 글씨를 출력해서 1장부터 다량까지 즉석에서 티셔츠, 쿠션, 모자, 가방, 타월 등에 T-업착기로 찍어서 여름성경학교, 교회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제품을 직접 만들면 시간적약은 물론 비용 면에서 알기는 가격이 10~90%까지 절감되며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상품이 완성됩니다.

인사말씀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회와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좀 더 좋은 제품, 공급을 통하여 교회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 아래 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올림 010-5779-0691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앞)

C·P: 010-5779-0691, 017-332-3217 Tel: 02)2065-1004 Fax: 02)2065-1005

50여종의 교회에 필요한 사무기기가 전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광기업 1588-0691 www.jubo114.com



서정배 총회장

예장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서울 대광교회)는 2일 WCC를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2013년 자기 총회 한국 유치에 대하여 교단 산하 노회와 교회들에게”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예장합동총회와 WCC의 관계에 대해, WCC의 신학과 역대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우리는 WCC와 함께 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총회는 1949년 개최된 WCC 창립총회에 대표를 파견했다.

그러나 1959년 11월 24일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모인 총회에서 WCC를 영구 탈퇴하기로 결의했다.”며 “그리고 1965년 9월 23-28일까지 서울승동교회당에서 모인 제50회 총회에서 ‘WCC와 NCC 관계되는 단체와는 본 총회 원칙과 정책에 의하여 본 교단 교직자들은 개인 자역으로도 관계할 수 없고, 강당 교류를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개했다.

서 목사는 이어 “WCC는 1948년 8월 22일 암스테르담에서 44개국 147개 교회 대표들이 창설했다.”며 “그후 시카고의 에반스톤(1954),인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편집장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사 및 논설위원과 해외지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상임고문 :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부이사장 : 정성준 목사(열린한인교회)

사 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 사 장 : 현병우 목사(임마누엘선교교회) 민종만 목사(세계선교중앙교회)

전국지사 대전지사 이사장 : 박영우 목사(대전경찰청 경목위원회 상임부주) 대전 총정지사장 : 라영수 목사(지사장) 전향회 사모(부 장)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 조광표 목사(목포만민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경북 대구지사 지사장 : 이상학 목사 전북 전주지사 지사장 : 박준성 목사(선일장로교회)

해외지사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형선 목사 일본 지사장 : 전동웅 목사(동경신학교 학장) 대륙 차림마이 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인도 지사장 : 문종기 선교사

본부 업무국 부장 : 정태종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 전향회 부장

서울시 중로구 인의동 48-26 (경철공제회) 1층 본지인터넷신문방송 www.JTNTV.kr (E-mail: webmaster@JTNTV.kr) 전화:070-8230-0032, 0034, 02741-0031, 02-407-6574, 팩스:02-763-0221 대표 : 011-468-6574

“종교올림픽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예장합동 서정배 총회장 담화문 발표…“WCC와 함께 할 수 없다”

도의 뉴델리(1961), 스웨덴의 옘살라(1968), 케냐의 나이로비(1975), 캐나다의 밴쿠버(1983), 호주의 캔버라(1990), 짐바브웨(1998),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2006) 등에서 열렸다.”고 소개했다.

서 목사는 특히 WCC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함께 하고 함께 일치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외형적인 연합 강조, 저개발 국가의 형편 옹호, 공산권 교회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대거 WCC 회원 가입, 모든 종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종교다원주의 인정” 등을 열거하면서 WCC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WCC 총회는 7~8년에 한 번 개최되며 전세계 349개 회원교단의 교단 대표 및 취재진 4천 명이 참석한다. 그래서 WCC(총회)를 종교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교훈한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화문 발표에 대해 서정배 목사는 2일 오후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담화문은 내가 직접 썼다.”고 말하고 “WCC가 다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유일성 신앙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또 “증경총회장단, 신학자, 임원들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WCC 총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파워

예장대신 ‘20만 전도운동’ 본격 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교회부흥성장을 위한 ‘20만 전도운동’에 본격 나섰다.

대신총회(총회장 김명규 목사)는 23일 오전 인양에 위치한 총회 본부에서 150여 명의 대신 교단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부흥성장 20만 전도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최근 신임 부총회장으로 취임한 박재열 목사가 20만 전도운동 대표회장으로 위촉됐다. 박재열 부총회장은 “2천개 교회, 45만 성도 규모로 20만 전도 목표를 세운 것은 통합교단의 목표에 거의 3배, 김리교단의 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목표지만 그만큼 한국교회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교단 내 모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기도, 성원 없이는 이루기 어렵기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작은교회살리기운동을 통해 축적된 사역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 그동안 초교파적으로 진행하던 부흥운동을 교단에 집중해서 실제적인 부흥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장 김명규 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그는 “교회의 본분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동안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발대식을 통해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고, 이 운동이 한국교회에까지 퍼져나가서 천만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대식에서는 CBS 박용수 TV본부장과 CTS 박천익 사목이 축사를 전했다. 한정총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증경총회장 유덕식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격려사에 나선 김요셉 목사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곧 복음전파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셨다”면서 “여기에 모인 목회자들 모두마음에 동일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만듭시다”고 밝혔다.

대신총회는 앞으로 2년간 7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진행, 20만 명 전도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20만 전도운동을 위한 7대 사역은 △각 권역·지역·노회별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집회,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농촌교회 부흥성장 특별계획사업, △개척협력 등을 통한 교단교회 확장운동 △세례 많이 준 교회 및 개인 시상 △노회·시찰·교회·개인별 전도 시상 △해외교회 및 선교지 후원 등이다. 20만 전도운동 조직도 속속 구성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수도권은 동서남북과 중앙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충청·강원·경상·전라 등을 합해 전국을 총 9개 권역으로 나누고 38개 지역 조직으로 세분화해 전도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대표회장으로 위촉된 박재열 부총회장 외에 총재에는 김명규 총회장이 고문에는 증경회장단이 나섰으며, 자문위원은 각 기관장인, 실형위원은 노회장과 권역별 실무위원장이 맡았다.

뉴스미션

프레이즈예술신학교 노량진캠퍼스 이전예배

“프레이즈예술신학교(학장 박연훈 목사), 노량진캠퍼스(구,연세중앙교회)로 10월 23일 이전하다. 실용음악도들의 염원이던 24시간 개인연습실 구축”



변화가 주목된다. 첫째, 학교명 변경과 학부의 전문화이다. 프레이즈 예술신학교의 이름에서 “서울중앙예술원”으로 변경되면서 프레이즈 학부(위십리대과, 음악과, 기독무용과, 교육목회과, 기독무용과, 음악치료과, 음악신학과 이상 7과)와 엔터학부(연극영화과, 개그연기과, 뮤지컬과, 아나운서과, 모뎀과, 측구과, 미술과, 부동산학과 이상 8개 학과)로 세분화되며 더욱 구체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두 번째로 총장취임이다. 11월 24일 오전 11:30분에 김용원 목사(서울순복음교회 담임)가 서울중앙예술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부총장은 박연훈목사(프레이즈 학부 학장) 엔터학부 학장에는 김민석 유로오케스트라 단장이 취임한다. 세 번째는 보컬을 가장 잘 가르치는 SCAU(서울중앙예술원의 영어 이니셜)로 4년제 실용음악을 최초로 개설한 프레이즈답게 실용음악의 최강을 꿈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이 세팅된다(예, 휘성, 거미, 빅뱅<태양>, 윤미래, 랩시, 이안, 박용하, 정선아 등의 보컬 코치였던 전봉진교수를 비롯한 방송현, 원수영, 임국희, 고영준, 장연주, 강태우, 하림등 보컬 교수님 7명~10명) 이번 해 까지만 무시험으로 전형하는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까지이다. 수시에는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로 전형하고 등록금을 2/1만 먼저 납입하는 특혜까지 있다. 서울중앙예술원으로 거듭나는 프레이즈의 미래가 장담 기대된다.

문의 전화 : 02-822-6001

63개국 교계지도자,10만성도의 기도함성 상암별 달구어

‘주 강사 조용기 목사는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23일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평화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회에는 1만여 명의 성도와 세계 63개국에서 온 해외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국제적인 분쟁과 이념 대립 그리고 국가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기도대성회 주강사인 조용기 목

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안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 마귀로부터 오는 광풍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 예수님은 피난처와 요새, 마른 땅

의 냇물, 곤비한 땅의 그늘처럼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용기 목사는 이곳에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는 데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기도대성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임선형 한기총 대표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이병박 대통령이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해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성회 일정

2(월)~5(목)	부산 회명교회(조경석 목사)	☎(051)612-9191
6(금) 오전	부산 JS.TV. Revival Center(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문 목사)	
6(금) 오후	글로벌미션선교대회, 장소 :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목장(군) 토마스기념홀 ☎(031)340-9114 주최 : 글로벌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 대화장 남미에 목사)	
8(주일) 오후	부평 열림축복교회(한미숙 목사)	☎(032)511-2739
	제155차 해외성회(155th Overseas Assembly)	
9(월)~12(목)	미국(U.S.A) 조지아 어거스타순복음교회(김요셉 목사)	☎(706)796-2683
13(금)~15(주)	미국(U.S.A) 버지니아 로복한인침례교회(오원철 목사)	☎(540)761-1333
16(월)~18(수)	미국(U.S.A) 캘리포니아 에나하임제자교회(이선자 목사)	☎(714)220-7660
20(금) 저녁	(제세례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연합성회)	
22(주일) 저녁	김해성산교회(홍인섭 목사)	☎(055)338-8492
23(월) 오전	민족복음화부흥사연구소(총재 이민구 목사)	
23(월)~26(목)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27(금)~28(토)	부산 JSTV 리비아발렌타(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 010-9269-7700	
29(주일) 오후	서울 임마누엘교회(조해금 목사)	☎(02)373-0179
30(월)~12(수)	성남 원동교회(이재희 목사)	☎(031)758-1234



대한예수교 남서울중앙교회
장로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참 좋은 교회

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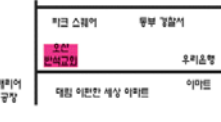
담임목사 : 김능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찾아오시는 길		
주일새벽예배 주일오전예배 주일오후예배 수요예배 일파과정 디사이플스	오전 06:00 오전 7:00 오후 2:00 오후 7:30 오후 6(주일)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주요기도회 주일학교 WVA영사과목 중·고등부 청년부	오전 05:30 저녁 8:30 오전 9:20 오후 1:00(토) 오후 9:30(주일) 오후 7:30(토)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정안교회”



담임목사 장 승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rmail.net H·P : 011-9027-9712

“박사간첩 사건만 문제가 아니다”

- 北 김양건과 南 김만복간 수상한 거래
- 대통령기록물 밀반출사건이 더 심각

인도로 유학을 갔던 학생이 北 김정일이 직접 편지하여 '친필과업'으로 아웅 산묘지 폭파와 KAL858기 공중폭파라는 반인류 비인간 범죄를 자행 한 대남공작 조직인 '조선노동당 35호실' 마수에 걸려 간첩이 되어 돌아와 17년간 암약하면서 북이 준 장학금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00당에 발을 들여놓는 등 정계침투를 노리다가 마각이 드러나 체포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06년 10월 민노총과 민노당 등 친북세력이 연관된 '일심화간첩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씨가 노무현 열반우리당 정권의 '포리자르기식 축소승계' 기도에 걸림돌로 여겨져 '烹'을 당한 사건을 비롯하여,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과 6.15공동선언에 간첩사건의 후속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일심화간첩단'이란 것은 재미교포가 낀 민노총, 민노당 내 열리기 친북주사와 간첩사건이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란 것도 미모의 탈북여성 미인계에 얽매진 군 초급장교들이 걸려든 사건이며, 이번엔 적발된 '박사간첩 사건' 역시 철딱서니 없는 나이 어린 유학생이 北 공작원의 마수에 걸려들어 해 나오지 못하고 17년간 암약한 사건이다.

이들 간첩사건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끼친 해악과 위협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정부 당국은 이를 계기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실종된 반공의식과 무너진 안보관을 복원하는 데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 간첩사건보다 안보상 몇 백배 몇 천배 위험하고도 국가(國基)를 흔들 만큼 심각한 세 가지 사건이 철저히 축소, 은폐, 망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제 17대 대선투표일 20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 북의 대남공작담당비서 김용순의 뒤를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야대평화위원장)이 된 김양건이 누구의 초청을 받았는지 서울에 와 노무현을 만나고 12월 1일에는 숙소인 위귀힐 세라톤 호텔에서 Mr. X를 2시간여 밀회 후 북으로 갔다.

정부는 북의 대남공작 총책임

김양건의 입국 경위, 김양건과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 통일부장관 이재정 등 김양건과 만난 인사들과의 접촉내용, 노무현에게 전한 김양건의 메시지와 노무현의 언급 내용, 특히 김양건과 2시간여 密會한 인물의 정체와 오고간 대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17대 대선의 판세가 드러난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 18일,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이 노무현의 10.4선 기념식수 표식을 전달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구실"로 평양을 방문 김양건에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선거상황을 포함하여 차기(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 전망까지 '보고' 했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戰慄 하면서 그 진상규명을 재차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공모하여 대한민국 최고기밀인 '대통령비밀문건'이 고스란히 수록 저장된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분해마을 노무현 사저로 밀반출한 사건이 노무현 사망을 틈타서 유야무야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하여 나름의 박차를 가하던 검찰은 "겨우 600만 \$ + 알파에 불과한 박연차 비자금" 수사로 국민이목을 돌려놓고 노무현 자살사건을 계기로 "적당히 덮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의 대남공작총책 김양건과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수장 김만복이

公私間 접촉을 통해서, 노무현 접견 시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기밀이 노출 되거나 '敵'에게 제공 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 18일 김만복 방북, 김양건 면담과정에서 오고간 국가기밀은 유학생 출신 박사간첩사건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을 서버 채 밀반출한 사건은 '회고록 작성'이라는 표면상 구실 하나로만은 설명될 수도 남득 할 수도 없는 '해괴한 사건'이다.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이 밀반출 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 누설 됐거나 '敵'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게 사실이다.

1992년 적발된 '남조선 조선노동당' 사건에서 당시 00당 총재 국방입법보좌관 이*희가 '92년도 국방중기예산안'을 홍인욱에게 제공 북에 보고한 사실 등에서 친북 성향의 노무현과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최고국가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의 단 한 구절, 한 페이지라도 김양건에게 흘러들어 갔다면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립과 유사시 승패를 좌우 할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추호의 유예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상에 지적인 사건들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권력학 심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현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규명해야 할 '국가문란'에 해당할 엄청난 사안이다.

백승목 대기자

박양우 목사 원로추대...성역 50년 마감

4개 교회개척, 경찰·학원선교 헌신 돌보여



50년 동안 목회자로 헌신해 온 박양우 목사 명예롭게 은퇴한 한 사랑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박양우 목사는 1959년 방축도교회를 개척하며 목회자의 길을 걸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가교회, 대전 문화교회, 한사랑교회 등 50년에 걸쳐 4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목회사역에 힘써왔다.

문화교회 개척 후 성전봉헌(1983년)의 비전을 달성하고 또 다른 비전을 위해 한사랑교회를 개척해 20년간 시무해 왔다. 박 목사는 교회개척 사역을 하면서 충남지방경찰청 전임 경목으로 활동하는 등 36년간 경찰선교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왔다.

중등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박 목사는 교목실장을 비롯 10여

년 학원선교 사역도 펼쳐 왔다.

50년을 복음전파를 위해 사역한 박 목사는 지난 10월 25일 서천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이날 예배는 김호덕 치리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이원희 장로의 기도, 바울침례교회 이금자 목사의 특송, 대전중앙지방회장 오두환 목사의 설교, 김두성 목사(세현교회 원로)의 축도로 진행됐다.

오두환 목사는 '우승하는 경주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50년이란 긴 시간을 인내해 온 박양우목사는 오늘 경주를 마치고 우승의 표시로 원로가 된 것"이라며 "오랜 시간 인내하고 충성, 봉사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도 우승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원로목사 추대식은 허성도 목사(대전교회)가 기도했으며, 김호덕 목사의 집례로 박양우 목사가 원로로 추대되었음을 공포했다.

이어 교단 총무 송윤기 목사가 박양우 원로목사에게 공로패 전달, 원로추대를 축하했으며, 박영섭 목사(선화교회 원로), 김준호

목사(대평교회)가 명예롭게 은퇴한 박목사를 축하했다.

박 원로목사는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어 아쉽다"면서 "50년을 목회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생각만 들지만 원로로 추대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양우 원로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한남대학교 인문사회 대학원 사회학 석사, Jerusalem Biblical Academy, 목회자 성경대학원 성경 신학전공 신학 박사, 충남지방회 회장, 대전지방회, 교역자 회장 충청지역 복지사업부장 충남지방경찰청 전임 경목, 33년 대전지방경찰청, 상임총무 3년 한국 경목총회 임원 교령 총양회 총회 임원 전국시도경목 실장회 임원 대전신학교 교수 한민대학교 교수, 한빛 고등학교 교목실장 제1회 국제 합람무아 드대회 부총장사단, 충청지역조직위원장 및 대전지회 총무, 햇빛회 대전지 회장, 기독교 선교 부흥사회 충청상임 회장, 푸리탄 신학대학 한국분교 교수, 대구 영남 신학원 교수, 대전 기독교 연합회 서기, 대전기독교 교회 문제 대책위원회 사무총장.

현 JTN 방송(www.jntv.kr)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중부권 지사장이다.

베니히 한국성회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 역사 나타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재현 하는 시간

09 베니히 한국대성회가 지난 달 24-25일 금관교회와 순복음성서교회에서 개최되어 성령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수만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베니히목사의 강력한 메시지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한국교회에 재현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참석자 전원에 게 등록비를 받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대거 참여해 하나님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족과 열방

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을 다짐했다.

성회와 관련하여 대표대회장 고종진목사는 "이번 성회는 구원,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 병고침이 있는 기적의 성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목사는 또한 "성회를 위해 그간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다"면서 "초대교회에 입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기도했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주강사 베니히 목사는 24일 낮과 저녁, 25일 집회를 인도했으며, 고종진목사가 강사로 봉만해 말씀을 전했다.

나겸임목사는 축사를 통해 "베니히 목사님으로 인해 기적이 나타나 줄 믿는다" "이번 집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준비위원장 정바울목사는 "성회를 통해 이 민족이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내적외적 등 은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맑은샘광천교회 입당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경기노회, 맑은샘 광천교회(담임 이문희목사)는 지난 11월1일 서울 성북구 석관2동 소재 본당에서 성대하게 입당예배가 드려졌다.



담임 이문희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원영상 장로 기도,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중경총회 장정찬 목사(온천제일교회원로)가 창6:13-22절 말씀을 인용해 "교회의 표상"이란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장차남 목사는 아름답고 웅장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감사예배를 드리는 담임 이문희 목사

와 당회원과 성도들을 크게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큰 복이 임한 것은 하나님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1)산교의 결과 (2)구원의 방주 (3) 진리의 동대 (4) 선교의 거름 (5)인식의 열매 (6)평화의 전당 (7) 소문과 증송, 등일곱가지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윤달 장로(건축위원장)의 건축경과보고, 김성우, 백정건, 권옥신, 정현

식, 김준호 전주농협 박종현 상무, 본 교회 건축위원장 박윤달, 황원철 장로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하고 김인환(전)총신대 총장과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경기노회장 장정원 목사 축도로예배를 마쳤다.

이날 남성듀엣 워드 워십팀인 팀PK, 송정미 사모, CCM 등이 출연하여 입당 축하공연을 가졌다. 광천교회는 오는 11월 8-10일까지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를초청 강사로(입당 감사 말씀 축제) 14일에는 노사연, 자두, 남성중장 씨팀과 남성듀엣 해바라기 등이 출연하는 등 지역 주민을 초청한 열린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목사 전 정 우
안수집사 윤림 이조 차영 정
홍준영 연석현 문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041)634-0441 (사무실)
041)633-9146 (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본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 회 특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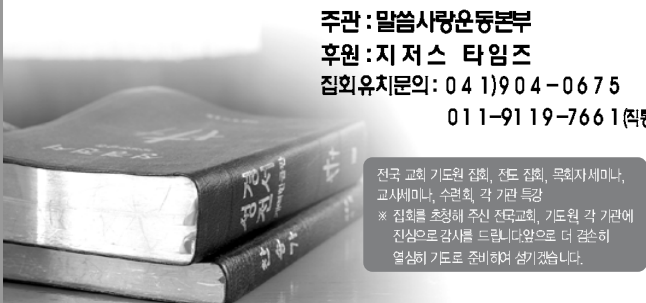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강 사 특 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전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도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전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여 기도로 준비하여 섬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문의: 031) 968-0199
교회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서동 799번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살아간다 '우울하다. 울적하다'라는 기분을 자주 느끼더라도 혹은 슬프거나, 울적한 기분이 지나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개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될 지라도, 또는 슬픔, 우울한 기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에 이르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과적 장애 혹은 질병이라고 말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리고 내일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고 명명되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안고 있는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죄]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신체적인 불균형이나 기타 신체의 장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 우울한 상황]이 닥쳐와서 우울함을 느끼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의 감정이나 기분 혹은 느낌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신 앞에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는 큰 슬픔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지라도 그러한 환경에서 무너지거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도하심 대신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김주원 박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더 의지하는 것 때문에 바른 믿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스스로 불행하여 하며 떨어지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 앞에 주어진 것들이 삶을 버겁게 만들지라도 예수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을 이기셨다.(요16:33)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에 두시기나 혹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죄에 빠져서 헤매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창5:02, 렘29:11, 롬8:28-29, 고전 10:13, 고후 12:9-10, 빌4:13) 어려움 속에서 서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시119:50, 고후 1:3-5, 7:6)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34:8, 42:11, 46:1-3, 55:22, 145:14, 마11:28-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Ⅱ

30, 히4:15-16)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신과의사들이나 심리상담가들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울의 상황]이 죄가 아니라 병이라는 신화속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환자의 범주에 두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가 병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정신과의사들이나 심리상담가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울의 상황 혹은 엄청난 우울한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면 확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의 몸을 맡기지 않을 뿐더러, 소위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상담가들의 말처럼 정신병자가 정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치료법은 고집해야 약물 치료와 정신신리치료가 전부이다.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나 억제제 혹은 불안감 때문에 수면이 방해되면 수면제들을 처방하여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부이다. (단가아민산화 효소억제제,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벤조디아제핀계의 진정 수면제, 리튬, 카바마제핀, 발프로에이트 등등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처방하지만 이 약들을 먹음으로서 우울증이 나갔다는 통계가 얼마나 있으며 또 이러한 종류의 약들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나 중독을 만들어 내는 지를 안다면 절대로 이러한 약을 투여하거나 처방 또는 복용하자는 약을 것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소위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는 우울증환자나 환자 가족은 이 약들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신념(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모들을 통하여 환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 약들을 계속해서 투여하고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약을 바꿔 가면서 조절 혹은 투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좋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 약들의 부작용이나 오용 때문에 생기는 약물중독 때문에 약물처방을 극히 자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병원의 운영이나 경영 혹은 환자를 컨트롤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다한 약들을 투약 함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죽여가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아있다.

만약 병원에서 조절해주는 혹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들이 확실한 치료의 효과가 있다면 약물치료를 환자를 다루면 될 터인데 우울증이라는 미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신리치료]를 병행한다. 치료자들은 정신치료라는 것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도 하고 또 원인이나 기타 치료의 방법을 알아 내려고 애쓴다. 또한 흔히 말하는 조기 발견을 통하여 더 극심해질 수 있는 우울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약물 사용하거나 혹은 정신신리치료를 하는 방법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체적인 의학 분야와 정신상담심리분야가 공존하고 있다. 서로 협력할 수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 논리 때문에 합하여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을 합하여 병의 원인을 움직이고있다.

만약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다른 이론이나 논리들이 필요 없을 것이며, 심리상담이나 정신신리치를 통해 문제가 치료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약을 투약하는 것 같은 행동은 전혀 필요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혹은 저것이 아니면 이것, 또는 소용이 되는 어떤 것이든 사용하여 병만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합할 수 없는 이론들이 서로 협력해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을 실험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⑪ 상담과 경청

B고교 3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J군이 등교하는데 기분이 몹시 나빠 보였다. 이유를 알아보려고 상담실로 불러서 물었더니, 아버지에 대한 분한을 이기지 못해 대뜸 욕을 퍼붓는데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너무 욕설이 심해 마음 같아선 뱀이라도 한대 때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그런 말버릇이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상담을 하는 선생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경청하기로 했다. J군은 얼마동안 이런 저런 욕을 하더니 분이 풀렸는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고는 아버지에 대해 막말한 것을 사과하고, 아버지에 대한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를 훌륭한 분이라고도 했다. 그 때 J군이 그랬던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야단을 치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이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경청해 준 것으로 상담을 끝냈으며, 상담은 성공을 했다. 경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서 나오며 또한 상담자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상담의 방



조영길 교수
· 백석문화대학
· 본지 논설위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J군

향이 내담자보다 상담자에게 집중되어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그 상황에 삽입시키지 않는 데서 얻어진다.

경청은 언어 뒤에 있는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경청은 감정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심적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감정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경청은 내담자의 모든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내담자의 관계와 모순된 이야기, 비논리적인 말과 두려워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듣고 그 과정에서 경청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는다. 상담이 실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경청에 의해서이다. 전문적인 상담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경청자는 아니다. 언젠가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상담자의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내담자가 한마디의 말도 끝내기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에게 말해 주고 있었다. 내가 걱정하는 바는 아무리 많은 상담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경청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하는 데는 사람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듣고 판단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10:46-52)조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서 열심히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 무리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의 처지는 관심 밖의 일이였다. 그러나 도와 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서는 머물러 서셨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경청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서서, 무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원시되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그 거지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게다가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소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알면 서로 그의 대답을 들으셨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일을 말한 그 때에야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구원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경청을 해주셨던 사람들은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상담에서 경청은 매우 중요한 많은 것을 내포한다. 아담스(J. Adams)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경청은 내담자의 감정을 존중한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을 좋아하던 싫어하든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에 의해서 잘 행동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상담자의 책임 중 하나는 내담자로 하여금 실제 상황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을 어떤 자로 생각하든지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1-3)

효자는 장수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물론 장수하기 위해 효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효(孝)라는 씨앗을 심어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둔다고 선포하고 있다. 효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의 근원적 관계이다. 이는 본래적이며 자연적이며 천부적인 관계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상황도 이 관계의 끈을 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할수록 항상 긍정이 건강하고 자녀들 마음이 든든하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른바 부모에 대한,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회귀본능이 발동한다. 특히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은 어떠한 스트레스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런 바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며 피난처인 셈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나이 드신 노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살아간다.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효성이 지극한 삶이 자신의 몸을 할무로 굴릴 수 없게 하며,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다. 건강의 차원에서라도 노부모의 잔소리를 숨겨진 지혜의 응집된 표현이다.

어머니의 존재가 건강의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선한 영향을 주게 마련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⑬

효자는 장수한다!

인 엔돌핀이 생성된다.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재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크게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불효자는 세상의 거대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 글을 타이핑하는 저 자신도, 또한 한 분 뿐인 저의 형님께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무력해지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 효로 효를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저 자신의 주변 가정들과 가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言)처럼 실감나는 말(言)이 없는 듯하다. 역시 효녀가 효녀를 낳는다. 자녀들은 눈을 번쩍이며 자신들의 부모가 부모의 부모이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대하는 태도를 직시하고, 어느틈인가 배우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예수님의 값진 말씀이 실감나는 상황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측면이 아닌가 싶다. 효자 효녀를 둔 공경받는 부모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건강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고로 부모의 건강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어 효자, 효녀는 장수할 수밖에 없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융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교와학도

신진동

수인산업도로

시흥시청

소래중학교

온행단지

온행동 250-1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선교교회

부천역

송내역

공평산 아파트

복사문거리

서림아파트

부둣길

문화센터

임마누엘 영성원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담임 현 병 우 목사
· 임마누엘신교회
· 본지 부사장

구원론 ⑥ 예수님의 보혈 II

모세의 명한 예물

(마8:1-4, 레14:1-32)

마8:1-4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회에게 증거하라 하신 말씀은 레14:1-32까지 말씀인데, 레14:1-7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14:1-2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 갑것이요 라고 말씀 하십니다. 즉 문둥환자가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하였습니다.

문둥병은 율법의 모든 저주중의 저주라 하였는데,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라 함은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예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마5:17, 롬13:10) 레14:3(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말씀은 (성문밖)영문밖에 나가 못박히실 예수님을 예표했고(히13:11-13, 레14:4(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있는데, 백향목은 예수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히실 십자가요(요1:29, 마27:35, 히10:10-12, 홍색실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실 고난이시며(마16:21, 눅18:31-33, 우슬초는 우리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심이며(렐12:21-22, 시51:7, 레14:5(호르는 물위 집그릇 안에서 잡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호르는 물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와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으로 맘미암은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려(사하시려), 열구리를 창에 찔러 흘려주실 예수님의 생명수이시고(요19:34, 겔36:25, 엡5:26, 히10:22), 잡는 새 한 마리와 집그릇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사 깨뜨리시고, 죽으실 주님의 몸이시고, 레14:6(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호르는 물위에서 잡는 새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흘려주실 또 새인 약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인데(요19:33, 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레14:7(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는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디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곱 번 흘리실 피(보혈)를 말씀하심이며,

- ① 겹세 마네(감람 산)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어 한번 흘려 주셨으며,
- ② 마26:6에 얼굴에 침뱄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심으로 두 번 피를 흘려 주셨으며(4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50:6에는 수염도 뽑히시는 고난이 기록 되어있음)
- ③ 마27:26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세 번 피를 흘려 주셨으며
- ④ 마27:29-30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귀를 갈대로 맞으시며, 네 번 피를 흘려 주셨으며
- ⑤ 마27:35, 막15:24, 23:33, 요19:23에 예수그리스도를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시22:16에 약한 무리 가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기록됨과 같이 수는 손이고 족은 발이니 십자가에 수 족 손에 못이 박혀 다섯 번피를 흘려 주셨으며
- ⑥ 시22:16에 수족을 찔렀나이다 기록됨같이 족 즉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여섯 번 피를 흘려 주셨으며
- ⑦ 요19:33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열구리를 찌트리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열구리를 창에 찔러 일곱 번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또한 레14:6-7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호르는 물위에서 잡는 새 피를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는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디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찌며 하신 들에 놓아주는 산 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십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예표 인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날의 규례라함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정한 산 새 두 마리중 죽임당하는 새 한 마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사 죽으신 예수그리스도 이시며*들에 놓아주는 산 새는 무덤에서 십일만에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 이시며(백향목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신 십자가이고 *홍색실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이시며 (찔그릇은 십자가에 못박히사 깨뜨리실 주님의 몸이시며 *우슬초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심이며 *호르는 물은 열구리 창에 찔리사 흘려주신 생명수 이시며 *죽은 새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이시며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는자에게 일곱번 뿌린 새 피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곱번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말씀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은혜

레14:10-20까지 말씀중에 10절에 흠없는 어린수양 둘과 일년된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가투 에바 심분심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복을 취하라 하였고, 12절에 속건제와 요제가 나오는데, 이 제물에 대하여는 제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기로 하고, 고운가투 에바 심분심에 기름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복은 성령님을 말씀하심이며(렐29:7, 30:22-33, 요일2:27), 일곱 번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우리가 성령님을 모심으로 이스트라엘과 함께 하늘로서 내려 오신 신령이신 예수님과 한 떡이 됨을 말씀하심인데(고전10:16-18), 14절에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의 피를 위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비를것이요 하신 말씀은 속건제 희생의 피는 속건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허물(자범죄라고도 함)을 사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이시며,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우편 귓부리에 바름으로 이제 세상마귀의 소리를 들던 죄를 사하심이요, 우편 손 엄지가락에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 세상마귀에게 속아 세상일을 하던 죄를 사하심이며, 우편 발 엄지가락에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 세상 마귀에게 속아 세상길로 나가던 발의 죄를 사하심입니다.

레14:15-16에 기름 한 복을 취하여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림은 성령님의 일곱가지 기름부으심이요,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르라 하심은 속건제를 드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귀가 이제 기름부으심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이요, 속건제물되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손이 이제 기름부으심이신 성령님으로 맘미암아 하나님 일을 하게 된것이고, 속건제물되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발이 기름부으심이신 성령님으로 맘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길로 가게됨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자의 머리에 바르라 하심은 자기 백성을 저회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이름으로 구원 받은자에게 이루시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심이며, 21-32절에 말씀하시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예물에 대하여라함은, 10절-20절까지 답대하고 장성한 믿음이라 한다면 21-32절까지는 연합하며 지라지못한 어린믿음이 라 하겠으며, 하나님께서는 답대하고 장성한 믿음도 받으시나 연합하며 지라지못한 어린 믿음도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심이 그 요지가 되겠습니 다,

결론

예수그리스도께서 마8:1-4 문둥환자의 제사장에게 정결케 된 자기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저회에게 드려 증거하라 하신 말씀은 레14:1-32 말씀과 같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 문둥병자였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그리스도 주님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일곱번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십일만에 부활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부으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는데 사용하시는 자들로 부르시는 놀랍고도 크신 예수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돌립니다.



박영남 교수 칼럼

박영남 목사
세계선교사 협회 G.M.C 총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원 교수(본지 논설위원)

‘아는 것TO KNOW’과 ‘사는 것TO LIVE’

(마 16:13-20) (눅 10: 25-37)

1.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호 6:3) (마 16:13-20)

3년 동안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풍문으로 떠들어 대던 예수님을 그들도 똑같이 알고 믿으며 따라 다닌 것인가?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중의 한사람, 아니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토라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영웅적인 대왕의 하나로...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하는 영적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는가? 그런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도망쳐 버렸는가? 우리는 의문이 간다. 히브리어에 ‘안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정보수집information 단계를 뛰어넘어, 수십 년을 결혼해서 살면서 지식 낳고, 한 이불 덮고 살을 섞으며 미운 정, 고운 정에 하나가 된, 부부간에 만 쓰는 말이다. 잠정, 단점, 알 것 다 안다는 말이다.

2. 「진리를 아는 것」과 「진실을 사는 것」의 차이

2,400 여 년 전의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독배 사건”은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충성했던 국가 권력과 당시의 케변주의자, 소피스트들 사이비 철학자들이 조작한 비극이었다. 인간의 무지와 모순을 보면서 ‘네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고 외쳤던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타락시킨다는 죄목이었다. 철학은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가치, 진선미중 최고의 가치이지만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이 진리나 진실,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이처럼 아는 것, 지식과 아는 그대로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진리를 아는 데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른다.

4,000년 전 고대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는 인구 10여만의 나라였다고 한다. 이런 대 도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짐승처럼 타락해버린 그 성을 기동처럼 지키고 깨우며 살려낼 만 한, 빛과 소금노릇을 할 의인 10명이 없었다. 10만 명중에 10명이면 만분의 일이다. 만 명 중에 단 한명의 의인이 없어 그 성은 지진 화산폭발로 불타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저 넓은 바다가 수십억 년이 흘러도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다. 97%의 맹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3%의 소금이 많은 97%의 맹물을 지키고 살려낸다는 말이다.

3, 너도 「가서」 그렇게 「살라」(go and do, like wise,(눅 10: 25-37)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길이다. 예수처럼 사는 길 - 하나님처럼 사는 길이다. 나를따라라! follow me!는 나를 닮아라! imitate me! 는 의미다. 배운다는 것, 안다는 것 -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은 가르치는 스승의 머릿속지식을 배우는 것 뿐 아니라 스승을 닮아가는 것 스승처럼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선했한 사마리아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누가 강도만난자의 이웃이냐?’ ‘go and do, likewise’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살라’ 신앙은 ‘아는 데로 살기’다. 사랑은 머리로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강도나, 제사장,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사람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만나, 모든 것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피투성이 가되어 길가에 버려진 상태, 그대로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강도만나 쓰러진 것을 알고, 밭에서 내려와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를 일으켜 자기 밭에 태우고 자기는 말고패를 잡고 마부가되어 함께 동행 한 ‘거룩한 동행자, 거룩한알리바이’가 되어준 것이다. 이 비유에서도 보고, 듣고, 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함께 걸어가는 이 야기다. ‘안다’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밭에서 내려, 낮은 자리에 서는 understand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숨쉬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로 사시려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 보고, 듣고, 알고 understand, 살아서 그레아속속들이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죽여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선다. 아름다운이란 ‘알 다름’이다.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 사랑의 육화肉化formation가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成肉身의 예수님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남의 체형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언어의 논리로 해석interpretation되고, 규정되고 정의definition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고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불립문자不立文字나 마찬가지다. 읊기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지럽게 말라’고 말씀하신다.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전운영제, 학위과정(학사, 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형)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010-7405-9191

함박재 가시오갈피 농장 무료체험단 모집

◆ 전국 교회에 드리는 ◆ 인사의 말씀



회장 정수 영 목사

이 신문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실모범적인 믿음의 기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마골 영농법인 조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선교회를 후원하는 업체로서 선교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장애인과 불우한 노인을 위하여 제품 판매 이익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9. 10.

실로암선교회
회장 정수 영 목사
H.P : 017-722-7331



◆ 일터사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 ▶ 당사는 국내산 가마골함박재가시오갈피와 의성흑미를 농축추출 저조원 가마골영농법인으로써, 사회환정을 위한 전국지사 및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 ▶ 가마골교회 남, 여전도회 사역자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자비한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70-8244-7525~8
- 실로암 선교회 : 070-8244-7528

‘믿음의 기업 가마골은 고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 보령혈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최초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개별인증항목**: 보령제약 혈통은 성장질환과 혈관확장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독점 제품입니다.
- 농경과학체험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최신 대형버스(65인승 리무진) 조성, 간식, 증식계공, 논산가시오갈피농장 견학, 관광지 탐방, 온천욕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 농경체험단 인정은 매주 월, 화, 목요일만 출발합니다

믿음의 기업
영농법인 가마골

서울특별시 중구 연희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1010호 TEL : 070-8244-7525-8 / FAX : 02622-6613
홈페이지 : www.gmagol.net E-mail : gmagol@nate.com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7시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화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을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2시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청년회
각구역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기관	마을 다지각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2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2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통교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통교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이상 미혼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권양동 1409-10
TEL. 031-384-6826

한국경찰선교부흥사협의회 창립예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1)



15만 경찰복음화를 위한 선교 단체로 출범한 한국경찰선교부흥사협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회관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동대문경찰서교경협의회, 동대문교구협의회, 다대씩경찰교회, 서울종로교회, 은혜교회의 후원으로 시작된 창립예배에 서기 정도근 목사 사사회 부흥사단장 김청원 목사 기도, 부회장 소정순 목사가 성경봉독을, 색소폰연주에 송한기 집사

외 3명, 대표고문 고충진 목사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찬양단장 김임순 목사의 특별한 양파, 김호운 목사(서울경찰청교경협의회 경정회장)가 축사를, 한병성 목사(동대문경찰서교경협의회 회장)가 권면했다.

이어 사무총장 오기열 목사 사회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추대패가 전달되고 대표회장 박진수 목사의 인사말씀과 고제동 목사(서울경찰청경목심장) 축도로 마쳤다.

국민설풍과 민심 어루만지기가 순서

정 총리, 국민의 이해와 야당의 협조 보다 박근혜 설득이 왜 급했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운찬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국민과 세종시현지주민을 상대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보완대책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부터 설득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원칙론을 내세운 박근혜 전 대표도 총리가 나서서 설득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일 수는 있었지만 이 건 번지수가 틀려도 한 줄 틀린 이야기라 하겠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정 총리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 보다는 “뭘 노리고” 그랬다고 보아야 할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인터뷰에 강소주 마시는 술꾼 정운찬 총리라는 이승환님의 패러디물이 유행하고 있다. ©이슈툰

해=상승적 반대자”라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무총리란 자리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진부한 표현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행정각부 장을 통할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며 대통령 유고시 제1권한 대행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에 못잖은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며, 국회의원 사정민회를 통해서 엄격한 검증과 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정운찬 총리의 경우에는 위정정임문제, 병역문제, 소득세 탈루 혐의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마찰을 빚고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는 등 총리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총리 임명 과정이 어떠한 간에 누가 보아도 정운찬 총리가 할 일은 박근혜 설득이 아니라 국민 설득과 충청민심 어루만지기가 우선이요 극력 반대에 나선 자유선진당을 비롯하여 민주 민노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까지 들먹이며 ‘박근혜’ 설득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박근혜는 국익까지 외면하는 비애국자”라고 매도하는 선동적 수법을 연상케 하여 어딘가 ‘공작정치’ 냄새마저 풍긴다고 할 것이다.

백승묵 대기자

정운찬 총리의 경우에는 위정정임문제, 병역문제, 소득세 탈루 혐의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마찰을 빚고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는 등 총리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정운찬 총리의 경우에는 위정정임문제, 병역문제, 소득세 탈루 혐의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마찰을 빚고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는 등 총리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목요 특별문사집회

강사진 조경두 목사 | 이병태 목사 | 김진호 목사 | 송미순 목사
말씀, 찬양치유역사, 우물증, 난치병, 귀신축사, 사탄, 애인 등

강사 송미순 목사

- 1.초대교회역사가 나타난다
- 2.트키온 성령의 불의 역사
- 3.산란 영권 인관 물결이 열려있는 축복
- 4.자중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 5.모이던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 6.말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영광제일교회

지금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복수

- 부목사: 김종성
- 전도사: 박희식
- 원로장로: 14명(남 12명, 여 2명)
- 목회장로: 14명(남 12명, 여 2명)
- 아래목회장로: 이복길, 정성원
- 장로: 14명(남 12명, 여 2명)
- 지회: 14개(남 12개, 여 2개)
- 파리노: 14개(남 12개, 여 2개)

신앙의 길에 걸림이 없고 기쁨으로 주일성수함이다. 신앙의 길에 걸림이 없고 기쁨으로 주일성수함이다.

지정역사: 14개(남 12개, 여 2개)

주말예배: 14개(남 12개, 여 2개)

총 455041-55-000 317

예배	시	간	교회학교	시	간
대예배	1부	주 일 오전 9:00	유치부	주 일 오전 11:00	
	2부	주 일 오전 11:00	유년주교	주 일 오전 9:00	
주일오후	주 일 오후 2:00	학 생 회	주 일 오전 9:00		
수요저녁	수 일 오후 7:30	청년·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새벽기도	매 일 오전 5:00				
심야기도	금요일 오후 10:00				

TEL: 041) 865-1301 FAX: 041) 864-8255
교역자실: 041) 865-1302 총합 연건조조치원을평리 6-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구분	시	간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양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 656-5830
H · 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 430-9107
Fax. 02) 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선 목사

기	관	시	간	장	소
장년부	대예배실	새벽 5:00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기관	시	간	장	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2교육관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하나님이 일하시 계(1)

찬양: 찬송가 340장 성경: 열왕기하5장8절-14절

이 땅에서 100%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없습니다. 나이란 장군역시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인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어느날 그는 허브리 종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열리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가서 몸을 씻으라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종들의 권유를 듣고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몸을 잠글때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는 가정이 될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이 일하시 계(2)

찬양: 찬송가 377장 성경: 열왕기하5장8절-14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란 장군역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문둥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에 포기하였다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을 기대하라

찬양: 찬송가 41장 성경: 에스겔36장33절-36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없이 오늘과 내일을 똑 같이 살아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무한 땅에 사람이 살고 무너진 곳에 건물이 세워질 것 이라고 말씀하

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황무한 땅도 에덴동산같이 됩니다. 황무한 땅에 사람이 살고 건물이 세워집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찬양: 찬송가 372장 성경: 갈라디아서 6장36절-37절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풍년을 기대하고 수확생들은 협격의 결 과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좋은 것을 거두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좋은 것을 드러하며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심는 가정이 되어 좋은 것을 거두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참 행복

찬양: 찬송가 363장 성경: 시편59편22절-23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운동도 합니다. 다시말해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은 옛날보다 더 좋아 졌습니 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우리의 편은?

찬양: 찬송가 384장 성경: 시편120편6절-9절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싸움을 하면 내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내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내 편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내편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마다 여호와와는 내편이심을 믿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역전시켜라

찬양: 찬송가 341장 성경: 사무엘상16장1절-13절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역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역전의 대명사 로또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로또에 자신의 인생역전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인

생역전이 아닌 인생폐인으로 살아 갑니다. 이처럼 로또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받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승리와 회복의 길

찬양: 찬송가 397장 성경: 사무엘상7장5절-11절

요즘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개인이 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변화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승리와 회복의 길이 되기 위해서 개인의 변화가 아닌 기도와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때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승리와 회복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때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여 승리와회복의길이 되는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끝까지 아름답게

찬양: 찬송가 350장 성경: 사무엘상3장8절-15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우리 생명이 끝날 때 까지 충성을 다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름답게 자기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 다. 사울이 그랬습니 다. 사울이 끝까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 조금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함을 버릴 때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아름답게 충성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이 마음을 품으라

찬양: 찬송가 507장 성경: 빌립보서5장2절-6절

오늘날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형에 몰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하습니 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보다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권력을 위한 욕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희락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기적같은 기도응답은

찬양: 찬송가 93장 성경: 히브리서2장18절-3장1절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적 같은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같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역시 "시련받는 자들을 능히도우신다. 그러므로 아무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 말씀합니다. 기적같은 기도응답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정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운명을 바꾸라

찬양: 찬송가 484장 성경: 역대사4장9절-10절

세상의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돈과 권력 그리고 가문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습니 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베스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이 존귀한 운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통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운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가정으로 바꾸실 것을 소망합니다.

제목: 운명을 바꾸어 산자

찬양: 찬송가 488장 성경: 사무엘상16장36절-41절

미국사람들 이름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고 집안에서도 불품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품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와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십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과 싸워 몇가지 승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이름이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지금은 무명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해 다윗처럼 운명을 바꾸어 살아가는 가정이 될것 믿습니 다.

제목: 진정한 행동

찬양: 찬송가 453장 성경: 창세기39장3절-37절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기준은 물질과 권력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물질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행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행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 갑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때 그는 행동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을 행동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행동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이 행동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동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노회장 장창윤 목사

‘예장웨신 경천노회’ 173회 정기노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천노회 173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지양 3동 소재 반석중앙교회(전동웅 목사) 분당에서 개회돼 현 노회장 장창윤 목사를 연임케 하고 부노회장에 전동웅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원은 서기에 정재경 목사(한빛교회), 부서기 김종국 목사(은성 교회) 회록서기 김영중 목사(방주교회) 부회록서기 이종식 목사(북락교회) 회계 전승욱 목사(밀알교회) 부회계 김임춘 장로(반석중앙교회)등이 선출됐다.

노회장 장창윤 목사(열린천양교회)사회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전동웅 목사가 기도드렸으며, 회회록서기 정재경 목사가 답 후 4:9-11절을 봉독하고 "유익한 사람"이란 주제로 노회장 장창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후 증경노회장 김영수 목사축도로 마쳤다.

이어 증경노회장 이원석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어 회계 전승욱 목사가 기도한 후 "성찬의 의의"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분병 분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집례자의 축도로 2부 성찬예식을 마쳤다. 이날 회무처리에 들어가서도 임원선출과 신규임원 교체 등이 이루어지고 모든 신안건의 등이 화기에애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성료되었다. 연임을 맡은 노회장 장창윤 목사는 지난 회기 동안 노회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를 섬기려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회발전과 총회를 위해 뛰겠다며, 인사를 했다.

또한 총회장 성홍경 목사와 총무 신언장 목사, 회록서기 이기식 목사가 노회를 방문하고 성노회를 축하했으며, 총회장이 총회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경천노회가 모범된 노회로서 앞장 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웨신총회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가 성노회를 축하하고 정문지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노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지도편달을 바라고 문서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를 구했다.

column

낙엽의 일생

만추의 계절, 낙엽이 주는 교훈.

단풍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 다. 그러나 거리에 나뭇구이는 낙엽의 시체에는 애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녹색의 영광으로 치장한 나무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 축제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 다.

소슬한 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은 인생의 짧음을 암시합니다. 낙엽이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인생의 낙엽은 순서도 없어요. 질병과 사고로 너무 일찍 낙엽이 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가을은 더욱 서럽습니 다. 성경 베드로전서는 만추를 맞은 현대인을 향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낙엽의 계절, 인생을 한번쯤 음미해보면 어떻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시133:1절)
2009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풍성한 절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94회기 총회장 최남규 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총회 임원 일동과 전국노회 각 노회장과 임원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총회장 최남규 목사



총무 장사강 목사

총회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204-3(분당예광교회)
전화 031)707-1214 702-3697 목사관 031)705-5099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담임목사 조광표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목회자 킬럼



정병오 목사
홍은교사운동 대표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실제로는 이 주소로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 저 진짜 이사했어요.” “아! 선생님이 교사 생활 1~2년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네가 떼어온 주민등록 상의 주소로 가정방문을 한번 가 봐야겠다.” “안 돼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이 지역의 학교들이 대입 성적이 좋지 않다고 대입 실적이 좋은 옆 지역 학교 근처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 집에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될 거 없다고

했어요요. 왜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러는데 선생님만 문제를 삼고 그러요.”

몇 년 전까지 내가 근무했던 M중학교는 큰 내를 사이에 두고 교육열이 높기로 소문난 K지역과 인접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2나 중3이 되면 한 반에 4~5명 정도는 주소를 K지역으로 옮겨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는다. 냉정하게 보면 M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고등학교와 K지역의 학교를 비교할 때 외적인 교육 여건의 차이는 거의 없다.

물론 K 지역이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되었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 K지역의 고등학교에 전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여차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M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K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아이들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도덕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중3 2학기가 되어 고등학교 원서를 쓸 즈음이 되면, 학교에서는 위장전입이 불법임을 여러 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린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는 위장전입 학생을 적발하라고 쌍심지를 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서류만 가지고는 위장전입을 발할 길이 없다. 결국 학교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뀐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어볼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학생에게 실제로 이사를 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신신부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조금 더 유리하고 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은 저질러도 되고 이와 관련된 거짓말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혹은 이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참고 견딤으로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속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위장전입을 통해 다른 지역의 고등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해 부러움을 갖는 아이들도 제법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위장전입을 통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장전입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학교로 진학의 폭을 좁혀 버리는 부모님이 무능하거나 답답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신도 커서 어른이 되면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자녀 교육을 위한다는 위장전입,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나 자기 자녀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보이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연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품인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고 하는 말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좀 더 건건이 좋은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위장전입은 대부분 자녀를 다른 지역에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특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도 제일 높은 곳이고, 그곳에 있는 학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보내고 싶어하는 제일 인기있는 학교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녀를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워낙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한국에서 자녀교육이라는 명분은 어느 정도의 불법을 덮을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다른 지역의 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은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 혹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중하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학교 2, 3학년 시기, 도덕적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자녀를 도덕적 갈등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는 이 행위는 도덕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적으로 매우 유해한 행위이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 뿐 아니라 그 시기의 많은 또래 아이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한 등급 끌어내리는 행위이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하고 우리 자녀가 살아갈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그 무엇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녀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침 신기중앙교회 안수집사, 권사취임 예배드려

기독교한국침례회 신기중앙교회(담임 이희우 목사)에서 지난 10.18일 오후 4시 안수집사 안수례 및 권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이희우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종국 목사(새복교회)가 기도를, 김철기 목사(새성교회)가 사도행전 13:21~23절을 봉독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이



주어졌다. 한규동 목사(직전총회장, 남문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김경석 목사(지방회총무, 주사랑교회)가 시회보고를, 담임 이희우 목사는 안수집사 및 권사취임을 받는 자들과 서약을 하고, 이재욱 목사(부평중앙교회)가 안수집사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김기택 목사(새인

천교회)가 권사취임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어 안수위원의 안수례와 담임 이희우 목사의 공포가 있었다. 아울러 예뻐요케스트라의 축주가 있는 후, 구정환 목사(침신대 이사장, 대석교회), 권용각 감독(인천기독교신촌 발행인, 선린교회), 황인정 목사(침례교기관장협의회장) 등이 각각 축사를 하고, 조요한, 여인진 등의 축하와 안수 받는 집사에게 김기복 목사(인천교회), 취임하는 권사에게 박준태 목사(하늘샘교회), 교회에게 민인남 목사(지방회장, 밀알교회) 등이 각각 권면했다.

이어 이재성 목사(대산교회 원로목사) 축도로 성료됐다.

하늘에서 내려올 산 돌에 맞지 않으려면~



▲ 과연 히스토리 채널 프로처럼 지구 종말의 해는 과연 2012년일 수 있으며, 행성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을까?

졌으며, 그 형상을 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단 2:35). 다니엘에서 말씀하시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돌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 꾸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이다.』 하였더라.”(단 2:45). 이 예언이야말로 확실한 예언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도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한 책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 세상 정치권력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들을 예언하셨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출현과 그로 인해 세상 최가 흥만했었을 때 살아계신 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예언하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야 한다. 앞으로 산 돌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귀중한 산 돌”이시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 돌들

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벧전 2:45). 죄인들은 그들에 맞지 않으려면 사우디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산 돌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모퉁이 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오직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다.「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벧전 2:6). 그런데 이 돌은 이중적이어서 유한한 사람들 생각에 무척이나 혼란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만하고 뒤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될 수 있고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돌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돌은 감히 인간의 손으로 다룰지 않은 채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언젠가 두 번째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 때 이 돌에 걸려 넘어져 산산조각이 나지 않으려면, 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 한다.

과연 히스토리 채널 프로처럼 지구 종말의 해는 과연 2012년일 수 있으며, 행성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지구의 멸망은 자연인들이 말하는 “행성”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산산조각날 것인데, 성경은 그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신다.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징조는 알도록 허락되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때라고 믿고 있다. 죄인들은 재빨리 죄로 물든 손을 씻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실로 성경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시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고 중 보고인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마 21:44). BP

박재권 캐나다 주재 기자

조용기 목사 ‘수도분할반대’ 적극 동참

김진홍 목사·서경석 목사·강문규·김효은·김춘규 장로 등 참여



여야가 쪼매하게 대립하고 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 고수, 정은찬 총리의 원안 수정 등으로 쪼매하게 엇갈리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진홍 목사(뉴라이프전국연합),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복지) 등 기독교계 인사들과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 등 종교계와 사회 지도층이 중심이 된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가 3일 출범했다.

강영훈, 현승종, 남덕우,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 강문규 장로(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이세중 변호사, 박용 전 총장 등 40여 명은 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이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에 도 불구하고 부처이전을 저지할 전망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 큰 걱정”이라고 밝히고 “세종시의 원안고수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

고 충청도민에게조차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북한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언제 통일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행정부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단식과 군중집회를 통한 포퓰리즘적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충청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방안에 대한 대국민설득에 나서고자 한다.”며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를 결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고 문·강영훈, 현승종, 남덕우, 노재봉, 이영덕, 정원식, 이한동, 조용기, 송일주, 김재순, 백선엽, 이해복, 김동길

상임대표·이상훈, 강문규, 이세중, 안병직, 김진홍, 박용, 최홍준, 성다, 이종석

공동대표·박세일, 장기표, 서경석, 박효종, 서경갑, 조용기, 박정수, 이동복, 김길자, 박희도, 김효은, 김춘규, 북거일, 김진성, 이상진, 류동길, 박영규, 공동집행위원장·박정수, 김병관, 최인식, 정성욱

사무총장·강길모

뉴스파워

잘못된 ‘관상기도’ 안에 ‘불교와 힌두교’ 있다

‘주어 삼장’의 뜨거운 ‘통성기도’가 특정 교단의 문화를 넘어서 한국교회 기도집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종의 ‘기도 문화’가 되길 바란다.

‘부르짖는 기도’ 문화에 대응해 ‘관상기도’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상기도가 혼합종교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성경신학회는 ‘불건전한 신앙운동에 대한 성경신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지난 2일 오후 신양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상기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김성봉 목사(사진)는 최근 관상기도에 이교도적인 요소가 혼합됐음을 우려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기도가 영적으로 유익함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남포중앙교회 김성봉 목사(대신총회신학연구원)는 최근 여러 목회자들이 ‘관상기도’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유익할 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관상기도가 단순히 ‘묵상하는 기도’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는 기도일 때 그것은 유익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성봉 목사는 관상기도의 이교적이고 혼합적



인 양상으로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목사는 “관상기도에 대한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은 명백하다”면서 “‘이탈’, ‘변이’, ‘비움’ ‘계발’ ‘각성’ 같은 단어들이 관련 도서에 많이 등장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관상기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 목회자 부부가 미국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사도원에서 영성 훈련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단체들이 기독교단체 같이 보여도 ‘종교’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새로운 기도의 분위기 정당, 성경의 가르침에 더 귀 기울여야 또 일부에서는 관상기도를 ‘침묵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명상과 주문식으로 짧은 내용을 반복해 중언부언하는 형식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성봉 목사는 “관상기도는 이교도의 명상에 말씀 몇 구절 얹어 놓은 것으로 초월적 명상행위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며 “말씀 사이에 관상의 의미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 자체가 미혹이요 함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통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통용되던 ‘겉모양이 같더라도 속의 정신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방식을 도입할 때 배경을 살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존의 기도 분위기에서 새로운 기도방식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 현상이라고 보면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 고요히 묵상하며 뜻을 헤아리는 기도라면 얼마든지 드러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와 아울러 조용히 묵상하듯 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와 아울러 주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모두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어떤 기도를든지 성경의 교훈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미션

사선을 넘어서

15화 꿈에 그리던 한국에 첫 발 탈북의 여정, 주마등 처럼

2008년 1월 27일,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새벽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국 영사관으로 실려가던 승용차 안에서 깜박 졸면서 꿈이 그대로 현실화했다는 게 신기했다. 꽃다발을 안기며 반가워 맞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대는 기자들...

우리는 대형 버스에 실려 어디론가로 갔다. 그간 중국에서 겪었던 3년여 동안의 저절했던 과정이 차창 밖으로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함께 오지 못한 동생들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이젠 영영 볼 수 없다 싶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나 때문에 배신자로 취급받을 일이 못 건디게 괴로웠다.

아직도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한국의 차창 밖 풍경이 너무나 황홀했다. 그 중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빨갛게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나 하나 둘 세어보았다. 그러나 이내 무리라는 걸 알았다. 그야말로 온통 십자가 천지였다.

아, 이 나라는 십자가의 땅,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큰 축복이 내려졌구나! 독재자 우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나라와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였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일정기간 당국의 조사를 받고 2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정교회교육을 받게 돼 있었다. 한 달 여 간의 조사를 마친 뒤 우리는 영락교회에서 드리는 합동예배에 참석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며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마 대단할



거야' 하는 기대도 했다.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니 그와는 또 다른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 가운데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였다. 6·25전쟁 때 내려온 실향민 1세대들이 지은 교회라는 데에도 각별한 의미를 느꼈다.

"여기 혹시 평양에서 온 사람 없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웬 남자 한 사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더니 불쑥 말했다. "이 동무가 평양에서 왔습네다." 옆의 예전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바로 "혹시 모래터에서 오지 않았소?"라고 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래터'라면 호위사령부 정사를 지칭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과 관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호위국 출신이세요?"

"난 호위국 장교였습니다."

기뻐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다.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렇게 호위국 출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다. 내가 호위사령부 협주단 배우였다는 걸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대부대 남측 동지 배우지요?" 더욱 놀랐다. 탈북 이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나의 지난 추억 속의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그 사람이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에 온지 5년이 지났으며 신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 다시 놀랐다. 탈북자도 공부하면 목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러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가? 아니면 연예인? 연예인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았다.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끌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끌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0~21)

‘예장(개혁)총회’ 출판감사예배드려

- 총회부흥사 대표회장 이용철 목사

- 총동문화 대표회장 황수자 목사 취임



총회장 박영희 목사

총장 이 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총회장 박영희 목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총회본부 본당에서 총회예식서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총회장 전하라 목사 사화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경서노회장 이옥자 목사 기도, 남서울노회장 황재순 목사가 성경봉독, 총회장 박영희 목사가 "은전케 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회록서기 김숙자 목사가 헌금기도

를 드렸다.

2부 출판 감사예배에 김복순 목사(전 국어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가 기도, 총회장 박영희 목사의 출판인사를, 편찬위원장 이 선 목사가 출판과정을 설명하고 권영중 목사(수도노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날 이용철 목사가 총회부흥사 대표회장에 황수자 목사는 총동문화 대표회장에 각각 취임할 것과 많은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축하를 받았으며, 박상근 목사(독 노회 부노회장), 총재 이 선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총회 간사 서한호 전도사는 총회본부와 신학교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2-2(3층)소재로 이전한다는 광고에 이어 이창수 목사(독노회 경경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인도 대홍수로 처처에 굶주린 수재민 넘쳐



인도 안드라프라데쉬에서 문흥기, 권혁정 두 기자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 현지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수가 나면 모든 일상이 마비되고, 그 후에는 주민들이 복구에 나서는데 허리가 된다. 큰 비가 홍수의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지수를 위한 댐 건설이 부족하다. 또한 홍수가 나면 강변과

저지대가 심각하다. 더구나 도시에 는 하수 시설이 미비해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으로 변한다. 그로인해 오염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키우는 측면이 많다.

금년에도 대홍수로 수재민이 인도 처처에 생겨났으며, 인도 현지의 선교사들도 인하여 한국의 여러 교회와 선교 기관에서 긴급지원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 의 각 총회로부터 수재의연금이 담지하고 있지만 워낙 피해가 커 구호물자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현지 선교사들은 분지 문흥기 선교사, 권혁정 선교사(분지 기자)를 통해 한국교회가 인도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를 구호물자로 도와달라고 했다.

"물 위에 빵을 던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게 될 것"을 믿는다면서 험뿔었을 때에 임하고, 주렸을 때에 먹을 주는 것은 최종 심판 순간에 받을 수 있는 영생하는 나라로의 입국 허가증임을 믿는다고 했다. 슬럼가 아이들에게 선교사들이 건네 준 치약과 칫솔을 받고 기뻐했다. 며칠 후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이 하는 말이 겹적이다. "달고 맛있는 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황급하게 "애들이 그건 먹는 게 아니야!"

로부협, 총재 이 선 목사 대표회장 장효상 목사 취임



로고스부흥사협의회(이하-로부협)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한국교회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총재 이 선 목사(개혁총신총장), 대표회장 장효상 목사를 추대하고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강신숙 목사 사화로 식전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심진수 전도사의 찬양과, 유한나 목사 기도, 파라다이스의 위십, 강신숙 목사의 찬양에 이어 김의철 목사 인도로 총재, 대표회장 취임예배가 진행되어 백종찬 목사의 기도, 이요한 목사가 성경봉독, 김옥주 사모가 특송을, 총재 이 선 목사는 "이슬같은 은혜"란 말씀을 선포해 경건하고 은혜로운 장이 되었다.

이어 취임패 증정과 권면, 축사, 격려사, 축가가 있었으며, 대표회장 장효상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장 대표회장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맡겨주신 사역에 어긋나지 않고 새로운 부흥의 사대를 꿈꾸며 교회를 초월하여 사명과 비전, 헌신으로 최선을 다짐했다. 이어 인사 및 광고를 임원석 목사가 전하고, 부총재 남종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탈린트 정애리, 제28회 세종문화상 수상

월드비전 친선대사로서 민간 외교활동 한 공로 인정받아...



▲ 정애리씨는 전세계 206명에게 사랑의 후원을 전하고 있다. /월드비전제공

탈린트 정애리 권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제28회 세종문화상 통일외교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한글날 기

념식장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대통령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3천만 원과 같이 상을 받았다.

정애리씨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서 전세계 206명의 아동을 후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우간다, 잠비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하여 빈곤 아동을 만나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 활동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은 "정애리씨는 전 세계 나눔 바이러스를 전파할 뿐 아니라 선한 한국인 이미지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연애인들의 나눔 활동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애리씨는 "소명으로 했던 일이 이렇게 선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빈곤 아동을 후원하며 선한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 설 것"이라는 앞으로의 소망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 신임원

회장	부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박중선 목사	도용호 목사	심영식 장로	김병근 목사	정마울 목사	유마울 목사
부회의록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감사	
박광철 목사	최귀수 목사	서정숙 목사	김탁기 목사	정해송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501호
전화 : (02)741-2782-5 팩스 : (02)741-2786
회장 박중선 목사 핸드폰 010-5288-0478, 서기 김병근 목사 010-9927-314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선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심을 다하여 개혁선교총회가 발전하고 각 노회의 지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김윤기 목사 총무 박남수 목사 외 임원일동



총회장 김윤기 목사



총무 박남수 목사

총회본부 110-850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3번지 정화B/D 3층

☎ 02)743-5779 팩스 744-0179

한국교회에 말씀중심의 부흥운동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는 말씀중심의 생명 목회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룬 축제와 같은 예배로 불과 몇 년 사이 진주를 시작으로 창원, 서울, 분당, 해외 13개 지교회로 사역을 확산시키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06년 12월 강남 대치동에 개척한 이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2년 만에 출석성도 500명 이상이 되어 현재의 분당으로 새성전을 구입하여 목회 사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전 목사의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철저한 성경중심 사역 때문이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예장고신이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출 19)',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마 5:18)'라는 교회 표어처럼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획기적인 방법론을 배제하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다'고 역설한다.

전 목사의 말씀사역의 결정체는 '관주해설 아바드 성경'이다. '관주해설 아바드 성경'은 사모인 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가 보관해온 20여년간의 전태식 목사의 각종 설교와 세미나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2006년 12월 출간한 이래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현재 전태식 목사의 설교 내용은 초대 인터넷 설교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PTV를 통해 국내와 365개 교회에서 매일 저녁 8시에 방영되고 있다.

전 목사는 교회 개척 때부터 365일 철야 기도도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뜨겁게 기도했다. 성장과정에서 술한 토크와 오해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

지 않고 오직 낙타 무릎으로 이겨냈다.

365일 깨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부흥운동의 원동력이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게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 목사의 사명의 실천운동은 교회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목사는 말씀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 개척 3년



후인 1995년부터 매주 금요일, 주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 후 해를 거듭 할수록 다양한 섬김의 활동을 쉬지 않았다. 식사 대접은 물론 이끼옹봉사, 장학사업, 어르신효도관광, 어르신 무료급식, 어르신 목욕비 지급, 무료 쉼나누기 운동, 불우학생 무료 자전거 전달, 구제 등 지역 사회 소외된 계층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7월에 아바

드리터 영어컨퍼런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쳐 착한 교회, 좋은 일 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였고, 이는 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전 목사는 필리핀에 신학교와 교회를, 창원진주초대교회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양도원, 육아원, 병원, 삼버멜, 학교를 설립하여 섬김과 나눔의 목회를 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해 아바드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날 전목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전세계 빈곤지역을 찾아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이사장 두상달 장로, 회장 정정섭 장로)은 23일 저녁 여의도 63빌딩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모금행사를 가졌다.

1989년 10월 24일 국내 최초로 해외를 돕는 NGO로 출발한 기아대책은 이듬해 교회를 통한 최초의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해외에서 원조를 받는 130개의 NGO가 있었다. 기아대책은 이듬해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등 7개국에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전세계 국가로 구호사역을 넓혀갔다.

1991년에는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했고, 1992년 10월에는 제1호 기아봉사단으로 류형열, 이민자 간사를 우간다에 파견했다. 현재 전세계 70여 국가에 759명의 기아봉사단을 파견했고, 현재 스텝

2300여명 등 전체 4800여명이 일하는 구호단체로 성장했다. 기아대책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사장 두상달)를 모체로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섬김(윤희구 이사장), 기아봉사단 훈련과 파송을 담당하는 국제개발원(최대원 이사장), 이 땅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법인 행복한 나눔(이사장 고은아), 선한이웃병원(이사장

박국양), 복지법인 기아대책(이사장 이성희)의 법인을 통해 떡과 복음을 나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두상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아대책 2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했다. 두 이사장은 "기아대책은 향후 전라지역에서 더욱 창의적 집

근과 내실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섭 회장은 "전세계에 1억명의 중보기도 네트워크, 국내 1천만명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0년까지 1천명의 기아봉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만명의 기아봉사단을 전세계에 파견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아대책에 공로가 큰 강성모 장로(기아대책 2대 회장), 윤남중 목사(기아대책 3대 회장), 원경선 장로(지도위원), 미화 5만 달

러를 지원해 한국 기아대책 설립을 지원한 호리우씨 목사(일본 기아대책 회장)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1991년 200만원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현금 40억과 물품 10억 원 상당을 후원했고, 이날도 23억원을 후원한 소망화장품 강석찬 사장, 연간 40억원에서 70억원을 후원하고 있는 이랜드복지재단, 기아대책과 기업을 연결하고 있는 김영길 박사(KAIST 경영대학원), 환경북도 빵공장에 빵을 지원하고 있는 김정욱 씨,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지원사업을 돕고 있는 노국자 씨는 감사패를 받았다. 사회를 맡은 홍보대사 이형재에게 그랜씨가 1천만원을 약정하는 등 참석자들이 기아대책 후원에 참여했다. 이하늬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다.

임후자 목사 세복운 여대표본부장 취임

세계복음화운동본부(이하 세복운) 총재 고충진 목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75-3 소재 시온성교회 대성전에서 지난 10,19일 저녁 7시 임후자 목사를 여대표본부장에 추대하고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임후자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 기도해 김인순 선교사(여대표감사단장), 성경봉독에 우선화 목사(상임감사단장), 찬양에 시온성성가대, 목침양에 세계복음화회합 선교단이, 설교에 총재 고충진 목사가 나섰으며, 고정자 목사(여사무총장)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어 이준영 목사(운영본부장)사회로 시작된 취임식

에서 총재 고충진 목사는 세복운 취지와 경과보고를 하고, 여대표본부장에 추대된 임후자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임 대표본부장은 꽃다발 증정과 취임인사를 가졌다.



임 여대표본부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세계복음화운동본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박창은 목사(공동본부장)사회로 시작된 3부 특별기도회에 국가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윤경관 목사, 경제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김청원 목사(상임감사단장),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박찬비 목사(여회계), 세계복음화 운동본부의 발전을 위해 김미자 목사(여실무본부장), 세계복음화 운동본부 여교역자회를 위해 황정에 목사(여공동본부장)등이 맡았다.

이어 이영섭 목사(사무총장)가 고백을, 원택희 장로(섬의위원장)가 오늘날은 교회부흥, 내일은 세계선교를 위해 구호재정을 가진 후마쳤다.

아울러 여대표회장 임후자 목사는 세계복음화운동본부 주최로 시온성교회 대성전에서 서울시복음화대성회를 20일~21일 저녁까지 가졌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동문회장에 이동우 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스)총회 총동문회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송석교회에서 총회장 성홍경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린 후 오후 2시 동교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장승현 목사가 기도를 하고, 이동우 목사를 총동문회장에 추대했다. 이동우 목사는 그동안 침체됐던 동문회를 활성화 해 나가자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와의 올바른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간다고 밝혔다.

소진우 목사 2009 · 2010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열방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 2009년 1월
- 3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5~8 일산금란교회(주성민목사)
 -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 26~30 필리핀선교집회

- 2009년 5월
- 4~7 에스라선교자훈련센터(이진화원장)
 - 10~13 불철축복성회(예복교회)
 - 14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18~20 미쁜교회(이봉현목사)
 - 21 민족복음화부흥사역수원
 - 25~29 선교지방문 (25 :부흥사역수원)

- 2009년 9월
- 7~11 은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목사)
 - 14,18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1~24 교단총회
 - 28~3 추석주간

- 2010년 1월
- 4~7 도곡산기도원(양예자원장)
 - 11~13 마가미다락방(박보영원장)
 - 18~20 신광교회(조효원목사)
 - 25~27 전동교회(이재정목사)

- 2009년 2월
- 2~5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6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옥산성결교회(박병정목사)
 -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 23~25 소망교회(조성봉목사)

- 2009년 6월
- 1~4 인천마가미다락방(박보영목사)
 -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 11 한빛교회(임성택목사)
 - 15~18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2~24 원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2009년 10월
- 1 마가미다락방(박보영원장)
 - 5~8 열린기도원(정은혜원장)
 - 12~13 정기노회
 -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 22 서부시칠연합성회(장대환목사)
 - 25~28 예광김리교회(류인덕목사)

- 2010년 2월
- 1~3 한샘교회(천복수목사)
 - 8~10 독산교회(김의태목사)
 - 15~19 네팔산교
 -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목사)

- 2009년 3월
-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 2~31 불철축복대심방

- 2009년 7월
- 3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5~8 새영교회(안영근목사)
 - 13~15 신학교제미나,성산교회(김정남)
 - 20~22 은현기도원(조은원장)
 - 24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 2009년 11월
- 2~5 안양길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 12 수동기도원(이태희원장)
 - 16~20 선교지방문
 - 23~25 전국목회자영성대회(유만석목사)
 - 30~2 대흥교회(정남기목사)

- 2009년 4월
-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 13~14 정기노회
 - 14~16 이리교회(이재경목사)
 -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김병식회장)
 - 27~29 총회임원교육

- 2009년 8월
- 3~5 마가미다락방(박보영원장)
 -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10~13 에바다용담기도원(최민숙원장)
 -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
 - 23~25 은현기도원(조은)
 - 2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30~5 심야특별기도대성회

- 2009년 12월
-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 14~17 호신나교회(김영환목사)
 -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목사)
 - 18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20~23 한미음교회(신규대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